

칸트 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 (七)

李相殷

우리는 엮던 事物 (가령 『어름』이라 하자) 經驗하라면 第一步로 우리의 感性이 그것을 接手하여 某種 特有的 知覺(마치 『잡』과 『씻음』 갖흔 것)을 構成한다. 그러나 이 참(冷)과 굳음(硬) 등의 知覺은 아즉 各各 孤立하여 서로 엮던 連結的 關係를 가지지 못하였다. 어름이라는 經驗이 完全히 成立되며 이 모든 孤立的 知覺은 반듯이 서로 連結하여 『이것은 어름이다』라는 判斷을 作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連結은 知覺 自身이 한 수 업나니 이난 다름 아니라 知覺 自身은 그런 自動的 能力이 업기 까닭이다. 그럼으로 그것이 連結되랴운 엮더한 自動 能力이 必要하니 그것은 悟性 (Wders tasling)이 아니면 아니 된다. (悟性은 結合的 原理라고도 稱하나니 卽 連結의 能力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悟性은 一定한 連結의 方式을 가졌스니 이 方式이 卽 十二 範疇이다. 이 方式에 依하여 綜合(卽 連結)한 것을 判斷이라 하나니 結局 判斷이라는 것은 許如한 知覺의 事物을 一個의 自覺(Ratinel minel)에 □- 식히는 것이다. 만일이 一個의 理解的 心 (Selbocrei ousrss)- 卽 自覺이 時空의 形式에 依하여 知覺치 아니하고 範疇의 形式에 依하여 判斷치 안는다면 우리는 決코 이 客觀 世界の 普遍的 또는 必然的 知識이 잇슬 수 업스며 決코 事物에 對한 經驗을 엮을 수 업는 것이다. 知識이라 함은 根本上 感官이 知覺한 時空的 事物에 對하여 悟性의 範疇를 應用하는 것에 不過하다. 이 까닭에 範疇가 아니면 經驗은 不可能한 것이다.

範疇는 判斷 成立의 條件만 될 뿐 아니라 또한 知覺 成立의 條件이다. 知覺이 知覺이 □□□ 반듯이 우리의 意識 속에 드러나고라야 된다. 意識 맞게 知覺은 知覺이라 할 수 업다. 그런데 知覺이 意識 속에 進入하랴면 반듯이 만저 意識의 法則에 드러마져야 하난 바 그 意識의 法則이란 다름 아니라 卽 範疇이다. 判斷에 必要한 그 自覺의 綜合的 統一은 知覺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로 必要하다. 이 自覺의 綜合的 統一이 업시는 判斷만 成立치 못할 뿐

아니라 知覺도 成立치 못한다. 思維 中에서 活動하는 再認識, 再生産 및 想像의 세 가지 作用은 知覺 中에 잇서서도 活動하고 있다. 例컨대 차다 (冷)는 것을 知覺하라 할 새 참의 經驗은 밧서 지났버렸다. 그럼으로 그것은 다시 認識하지 안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임이 지나간 經驗을 再認識하라면 반듯이 먼저 지나간 그것을 復活식하지 안으면 아니 되며 그것을 復活식하라면 想像力으로서 밧게 復活식할 수 업다. 그러나 最後로 업서서 안될 것은 自我의 統一이니 이 自我의 統一이 아니면 所謂 再認識, 再生産, 想像 등이 모다 헛일이 되고 만다. 이 自我의 統一은 卽 範綜合의 原理이다. 範綜合은 卽 이 自我 統一의 表現 方式이다.

우에 依하야 ……(이하 원문해독불가)…… 의 □□的 條件이 ……(이하 원문해독불가)……었다. 쯤는 範疇는 經驗의 前提的 條件이니만치 그것은 先驗的의 것이오, 經驗으로부터 얻어온 것은 될 수 업다. 다시 말하면 範疇는 우리의 心靈이 先夫的으로 갖춰 잇는 一種의 知識 獲得의 方式이다. 이 範疇의 方式에 依하야 心靈은 이 世界를 認識하게 된다. 그럼으로 이 現象界의 모든 秩序이 自然界의 모든 法則은 實로 우리의 心靈이 이 世界를 그러케 認識하기 쯤문에 存在하는 것이오, 決코 이 世界自身이 무슨 秩序나 法則을 具□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經驗論者의 말한 바와 가치 自然界의 모양에 依하야 自然을 認識하는 것이 아니라 自然이 우리의 認識하는모양 (方式)에 依하야 存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칸트는 말하기를 『悟性이 自己의 法則을 自然의게 規定해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自然의 法則은 우리 가준 것이 그 自身의 것이 아니라 말이다. □來의 모든 哲學이 法則을 自然 自身의 것으로 看做함에 反하야 칸트는 法則을 吾人의 □與한 것이라 하였스니 이것이 칸트哲學을 코퍼니켄 革命』이라고 稱하는 所以이다.